

유아의 의사소통에 관한 인본주의 관점과 성경적 관점의 비교 고찰

강은주 교수(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I.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인은 최첨단의 대중매체와 IT 산업의 초고속 발전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 살아가면서도 빠른 정보와 산업화, 첨단화된 경쟁사회에서 경시되는 인간에 대한 사회현상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접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은 소통의 부재로 공허하다.

인간의 의사소통의 핵심적 역할의 장인 가정에서 조차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위기, 역기능 가족의 세대전이, 교육공동체 안에서의 소외와 따돌림 현상, 생산성에 비춘 구조조정에 따른 부모님들의 실직과 빈곤의 세대전수, 양산된 전문인력의 사회진출과 자기성취에 따른 자녀출산률 감소, 부-부, 부모-자녀간 애착형성의 미약화, 대리양육기관에서의 대리양육시간 증대로 인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책임회피, 빈익빈 부익부, SNS 속에서라도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감을 확인하려는 노력과 그렇지 못할 경우의 정체감 상실, 자살, 폭행, 공격성, 대화 결여, 인간관계 약화, 대중매체가 압도하는 군중 심리 속에서 한 개인이 자아정체감을 갖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자신과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의 자아존재감과 그를 둘러싼 삶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 및 기능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영유아와 주양육자와 대리양육자 모두가 매 순간 살아가고 있다.

인생초기부터 자연발생적 기원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은 신생아기부터 내재적 본능과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능력이 차츰 명료해져가며 그 능력과 기술도 세련되어져가서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법을 학습하기도 하지만 그 능력으로 사회 적응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도 한다.

영유아기의 외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편견은 초기학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체득되어감에 따른 학습경험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증명된 바이다 (Derman-Sparks & the ABC Task Force, 1989; Derman-Sparks & Edwards, 2010; Fodstad, Matson, Johnny, Hess, & Neal, 2009; Frizzo, Vivian, Piccinini, & Lopes, 2013; Southgate, Van Maanen, & Csibra, 2007; Paavola, Kunnari, Moilanen, 2005; Wellman, Lopez-Duran, LaBounty, & Hamilton, 2008; Wheeler, Anzures, Quinn, Pascalis, Omrin, & Lee, 2011).

특히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게 된다. 유아들은 영아기 때부터 가장 중요한 타인인 가족과 주변인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

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 바람직한 자아상과 자존감은 바람직한 의사소통기술에 필요한 정서적 자원이며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더 돈독히 하는 연대감을 제공한다. 따라서 바른 의사소통을 통한 올라 반 정체감 형성과 자아존중감 형성, 사회관계에서의 자기표현과 타인수용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습득은 사회적 생존의 필수 도구가 된다고 볼 수 있다(선안남, 2011; Janes, 1991; Katz & Tello, 2003; Oppenheim, 1997; Pallas et al., 1990; Roberts & Bengtson, 1993; Ucci,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생존기술의 기초이며 도구가 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일반적 관점을 뛰어 넘는 더 근원적 기원인 성경에서 인간(유아)의 의사소통을 살펴보고 이 소통방법과 예시야 말로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의 근원적 해결방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유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온전하고 바람직하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그 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 방법을 인본주의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영유아의 의사소통에 관한 인본주의적 고찰

1. 행동주의 관점 (Behaviorist's Perspective)

B. F. Skinner와 같은 행동주의자들은 학습을 학습자의 외부의 인적(부모)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부터의 주어진 경험의 반복과 강화의 산물로 본다. 언어습득(학습)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언어학습(습득)자들은 외부 환경의 자극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간주된다. 전통적인 행동주의 심리학자(Skinner, 1957)는 언어를 강화기능(function of reinforcement)에 대한 산물로 보았다(McLaughlin, 1978). 행동주의자들은 반복과 강화를 언어발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기대되어지는 특정 언어적 행위가 자동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행동주의이론을 영아의 언어습득에 적용시킨 Bloomfeld(1933)는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를 실례로 들어 영아가 어떻게 성인의 음성언어와 똑같은 언어를 습득하는지 설명하였다. 영아들은 그들의 주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의 다음과 같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모국어를 습득한다고 믿는다(Piper, 1993). 행동주의자들은 “유아들의 주변의 또래나 성인이 말하는 반복적인 언어들이 언어학습의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언어학습자들은 외부의 언어 자극을 모방하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그 언어들을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 관점에서 설명한 언어습득의 현상은 학습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얻는 언어행위와 언어 입력의 단순한 예들을 살펴보면 그럴듯해 보이기 는 하다. 또한 전통적인 언어 교수 및 학습방법의 상당부분이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많은 교사들이 유아 가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단어의 철자법과 발음,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한 어휘들을 반복하여 연습하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의 언어자극을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언어습득에 관한 행동주의 관점은 몇 가지 의문점을 남긴다. 유아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어휘를 언어자극으로 수용해야 하며 이를 얼마나 반복하여 연습해야 하느냐와 유아들의 과잉일반화 현상을 나타나는 언어 오류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나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유아들의 언어습득과정을 과잉단순화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심리학계의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McLaughlin, 1978).

2. 천성주의 관점 (Nativist's Perspective)

Noam Chomsky는 “언어습득장치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가 인간에게 천성적으로 내재되어있는 언어습득장치이며 이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언어발달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생물학적 언어프로그램은 영유아의 언어를 무의식으로 따라 발화시키는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구조에 따른다고 본다. 이 구조를 통해, 언어습득자는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과 상관없이 공통된 언어특성을 나타낸다고 본다(Chomsky, 1968; Piper, 1993).

한국어에는 연령, 가족의 신분, 대화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다른 존칭어를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아가 어른과 대화를 할 경우,“-했다.”라는 동사는“-했+습니+다.”로,“-했어”는“-했어+요”로 존칭 종결 어미가 덧붙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했다+요”로 과잉 일반화하는 존칭어를 만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영어권 유아들을 보면, 자신들이 이미 습득한 언어를 사용하되, 그것을 새로운 학습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아들을 보면 “made”라는 동사대신 “maked”, “went” 대신 “goed”라는 단어를 쓰곤 한다. “maked”나 “goed”는 인습적으로 수용가능한 단어가 아니다. 단지, 유아들이 갖고 있는 보편 문법이 과거 시제를 만드는 규칙을 통제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을 뿐이다. 한국의 유아들도 미국 유아들과 유사한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경향을 보인다. 한국 유아들은 인습적으로 수용 가능한(conventionally acceptable) 존칭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잉일반화의 경향을 보인다.

이 두 언어권의 실례는 Chomsky(1959)의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에 따르면, 한국 유아들이 그들의 내재된 언어습득장치(LAD)로 인해 그 주변의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비인습적인 언어를 창안해내는 과잉일반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천성주의 관점은 학습자의 환경에서부터 오는 외부적 자극이나 경험보다는 언어습득자의 내재적인 언어습득 프로그램의 구조상으로 언어가 전개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학습자에게 내재된 창안적(inventive) 능력이 언어습득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도 언어학습/습득자의 창안적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상호작용주의 관점 (Cognitive Perspective)

피아제의 인지적 상호작용주의: Jean Piaget는 영유아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단계적 이론을 정립한 최초의 학자이다. 언어학습에 관한 Piaget의 인지적 구성주의 이론은 언어습득을 좀 더 포괄적인 인지발달의 한 부분으로 본다. 인지적 구성주의자들은 행동주의와 천성주의와 어떤 측면에서 공유된 견해를 갖고 있으니 두 이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념체계를 갖고 있다(Piper, 1993:78). Piaget는 언어와 사고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고, 언어발달은 더 근본적으로 인지발달의 기반 위에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Chomsky의 천성주의 이론에 대조를 이룬다. 또한 그는 언어발달을 인지발달에 수반된 표상(representation)의 결과물로 간주한다. 유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언어체계와 다른 자신의 사고체계 즉, 상징적인 인지적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Smith, Goodman, & Meredith, 1976:133). 즉, 언어는 유아와 성인 그리고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 요소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유아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Piper, 1993:79).

Vygotsky의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사회적 맥락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론가로서 Lev Vogotsky는 언어와 문해학습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이라고 보며 이것은 의미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이며, 학습자 내면의 심리적 상호작용에서 타인과의 심리적 상호작용들의 내면화 활동으로 본다(Ohta, 2001).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언어를 유아의 발달의 중요한 도구로 본다. 그는 성인과 유능한 또래가 유아들이 언어를 발달시키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및 문제 해결력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한다. 그의 언어학습에 관한 견해는 Goodman의 교류주의 언어발달의 모델뿐 만 아니라 제1언어, 제2언어, 학습이론, 심리학 그리고 여러 분야에 기여한 바가 크다(Goodman & Goodman, 1990; Schaffer, 1993; Schinke-Llano, 1993; Tudge, 1990)

Vygotsky는 유아들은 자기보다 유능한 또래나 성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많은 혜택을 얻는 발달에 적합한 의미있는 학습맥락의 영역을 근접발달영역(ZPD)이라고 명명한다. ZPD에 대한 시사점은 영유아의 의사소통발달을 위한 언어적 환경의 적합성에 대해 현재의 언어인지적 상태와 그 보다 약간 진전된 상태와의 간격 안에서 타인으로부터 약간의 도움만 받으면 학습자가 극복할 수 있는 독립적이면 주도적 학습을 성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범위이다. 이 영역 안에서 학습자는 약간의 노력으로도 과제를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쉽게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Goodman & Goodman, 1990; Pepler, 1993; Tudge, 1990). 이 영역 안에서 유아들이 또래들과 함께 하는 놀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현재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욱 명료화해가며 새로운 개념이나 문제해결력을 얻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말을 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유아들이 놀이가 언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여 언어습득과 언어발달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Piaget나 Dewey와 같은 교육자들과 일치된 견해를 갖는다(Goodman & Goodman, 1990; Vygotsky, 1978). 그는 사회적 맥락 안에 존재하는 조력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많은 교류주의자들에게 지지를 얻게 되었다. Goodman 부부(1990)와 같은 총체적 언어의 주창자들은 유아의 언어학습 상황에 처한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언어학습은 그 언어를 유목적, 기능적, 실제적, 자연적으로 활용할 때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Goodman, 1986; Goodman & Goodman, 1990). 언어학습자가 자연적인 언어사용의 환경에 몰입(immerse)하게 될 때 자연스런 학습이 되며, 학습동기도

증가하게 된다고 말한다.

4. 교류주의 관점 (Transactional Perspective)

교류주의의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론적 기초는 문자해독이 가능한 유아들(A)과 불가능한 유아들(B)의 초등학교 진학 후 학업성취도와 가정의 문해환경을 비교한 결과 A팀 유아들의 문자해독연령이 약 만4세경이며 부모들의 문해행동임을 많이 발견되고, 가정내 책들이 있었고 자녀들의 읽기 쓰기 관심에 대해 부모나 형제들이 자연스런 반응을 보이며 상호작용하여 자연발생적 문해력을 습득하게 됨을 발견하게 된 Durkin(196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대체로 읽기 쓰기가 일상의 삶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 일어난다고 본다. 둘째, 문해능력이란 단순히 본문의 단어해독이 아닌 영아기때부터 경험할 수 있는 책다루기 기술, 책임기의 방향, 활자의 기능, 그림의 기능 등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발현적 문해경험(emergent literacy experiences)의 개념을 주장한 Clay(1967)의 연구를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기초와 더불어 일상의 문해경험을 통해 문해능력을 발달시켜나가는 실용적, 자연발생적, 총체적 언어교육철학을 주장하는 Goodman 부부(1979, Goodman, 1984, 1986, 2006)의 연구들이다. 총체적 언어교육의 철학적 기초는 Dewey(1990)의 실용주의 맥락에서의 생활중심 언어교육(Edelsky, Altwerger, & Flores, 1991; Goodman & Goodman, 1990), Piaget의 인지적 상호작용주의, Vygotsky(1978)의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Halliday의 7가지 언어적 기능(Goodman, 1988), 그리고 Rosenblatt(2005)의 독자반응이론 등에 근거를 둔다(Connell, 2008).

인식론자 Dewey의 영향을 받은 Rosenblatt(2005)은 그녀의 저서인 “Meaning with Texts (MMT): Selected Essays”에서 “의미란 과학적이든, 심미적이든, 그것이 시나 학문적 보고서이든 간에, 특정 사인(활자)들과 독자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Connell, 2008).

Goodman(1986, 1988, 2006)은 언어학습이 제1언어와 제2언어학습에 상관없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학습자들이 언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학습할 언어를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Goodman, 1986; Freeman & Freeman, 1992). 이는 또한 일상생활에서 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학습자들은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의미를 창출해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교류주의를 따르는 총체적 언어교육 주창자들에게 있어 언어는 언어학습자의 학습동기와 목표에 따라 학습의 주체와 소유가 학습자에게 있어야 하고 외부의 그 어떤 힘이 작용하여 강요적, 지시적, 분절된 학습이 아닌, 학습자의 내적 필요에 의한 동기유발에서 우러나오는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경험이 교실과 가정과 삶의 총체적 측면에서 통합되어지는 일상의 교육적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들의 삶의 시공간이 유아의 학습의 주요 핵심내용이면 학습 환경, 매체,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습자는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씬으로 해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언어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

Goodman의 교류주의 이론에 따르면, 유아의 언어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힘(in-

and outbound forces)을 설명하였다. 그는 학습자의 내부와 외부에는 각각 창조적 힘(creative force)이 존재한다고 본다(Freeman & Freeman, 1992; Goodman, 1988; Goodman, 1990). 언어학습자는 천성적으로 자신의 언어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적 힘이 자신의 외부를 향해 나아가면서 자신의 언어적 자원과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 이 힘은 유아 자신이 내면의 언어를 외부와 달리 새롭게 창안해내는 자신을 외부로 향해 표현코저 하는 힘(outward bound force)에 의해 “개인적 창안(personal invention)” 또는 “원심력(centrifugal force)”에 의한 창안적 언어와 철자들, 즉 언어적 표상(representation)을 통해 자신의 언어 한계를 벗어나 점점 더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힘을 발휘한다. 동시에 그들의 창안적 언어와 시도들은 그가 속한 언어학습 환경의 기존 언어사용자들에 의해 “사회적 인습(social convention)” 또는 “구심력(centripetal force)”에 의해 학습자의 언어를 기존의 사회언어와 공통적으로 언어가 통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결국 사회의 인습적인 언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지원하는 학습자를 향한 외부의 영향력(inward bound force)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Goodman, 1988).

Krashen(1999)은 교류주의의 독자반응이론을 반박한다. 독자들이 본문의 의미를 선택적으로 만들어내는 언어추측게임(linguistic guessing game)의 한계를 지적하고 독서 중 활자에 머무는 눈의 움직임(EM: eye movement)을 통해 독자가 본문의 글자 하나하나를 해독하면서 그 의미를 문장에서 추출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연구를 제기하고 있다.

5. 사회언어학적 관점 (Socio-Linguistic Perspective)

사회언어적 관점에서 본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은 그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사회적 맥락에서 보는 관점을 말한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기호)이므로 이 언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여 유아가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사회적 생존과 생활을 바람직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켜가며 좀 더 나아가 자신의 전인적 발달에 주요 도구가 되는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대한 이해는 영유아의 언어적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개념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더 잘 이해된다. 언어적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이 적절하고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면, 의사소통능력은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그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가 자신을 이해하도록 하는 언어활용능력을 의미한다(Hymes, 1972). 유아는 언어를 활용하여 그가 원하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구성요소에는 화용론(pragmatic language), 담화(discourse)/대화(conversation),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사회경제적 지위(SES), 문화, 성 등의 사회적 요소와 의사소통과의 관계로 구성된다.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영유아의 의사소통의 개념 중에는 영유아가 말하는 각 문장 즉, 발화행위(speech act), 관찰이 불가하지만 의사소통의 진정한 의도 즉 핵심 기저가 되는 의도성, 말하는 의도를 어떻게, 어떤 상황에게, 어떤 문자형태로 어떤 기능을 전달하느냐는 등 형태-기능연결하기 요소가 포함된다(Hoff, 2003:303-306). 담화-대화에는

보통 2가지 기본규칙인 **말 주고받기(turn-taking)**, 진행되고 있는 대화에 기여할 만큼 **협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Grice, 1957, 1975; Sacks, Schegloff, & Jefferson, 1974).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는 화자는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말하는 방식(registers)**이 달라지고(Tannen, 1990) 계급, 집단, 공동체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어휘, 스타일, 통사 등이 달라지게 된다(Heath, 1983).

6. 진화론적 관점 (Evolutionary Perspective)

인간의 언어와 의사소통의 발달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사회적 생존과 오늘의 문화 번영을 가능케 한 능력이며 체계이므로 인간과 유인원의 DNA의 99%가 공유된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유인원의 창조기원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근거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관점에서도 고고학적 자료로 증명해내지 못한 채 둘 사이의 발달적 기원의 연관성만을 추측하여 주장하고 있다(Whitney, 1999).

인간과 동물의 의사소통체계의 공통점을 단어나 기호(상징)가 갖고 있는 실체의 의미(개, )를 말하는 **의미성(semanticity)**, 단어(개)와 구체적 존재()와 임의로 연결해 놓았다는 점에서 **자의성(arbitrariness)**, 단어의 상징은 각각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의미와 각각의 단어를 가져 서로 연속된 개념이 아닌 독자적 개념과 단어를 가졌다는 점에서 **비연속성(discreteness)**, 비연속된 상징적 기호인 자음(ㅂ)과 모음(ㅏ)의 음소들이 모여 음절(바)이 되고 이 음절들이 모여 단어(바다)가 되는 자음과 모음의 **이원적 체계(duality of patterning)**, 시대를 따라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시대적 언어의 **생산성(productivity)**, 구체적 물건과 사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공간적 **초월성(displacement)**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여전히 그 설명에 대한 제한점을 두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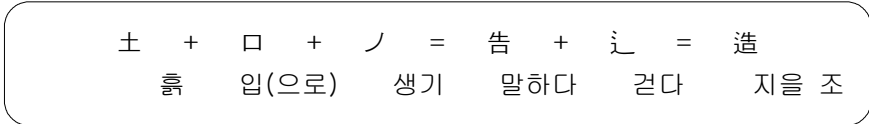
인간과 유인원의 언어의 공통적 디자인 특성으로는 13가지 특성을 들 수 있다(Hockett, 1960). 인간이 타인의 말을 들으며 동시에 그 말에 응대하면서도 다른 일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발화-청취 채널(Vocal-Auditory Channel)**, 청취가능 영역에서만 소리발생 근원지를 인식해낼 수 있는 **인지수용능력(Broadcast transmission & directional reception)**, 발화 직후 소리의 **사라짐(Rapid Fading, transitoriness)**, 들은 말을 즉시 발화할 수 있는 **상호교환성(Inter-changeability)**, 자신의 발화언어를 화자가 직접 듣고 자신의 발화를 진단하고 내면화 가능한 **총상환작용(Total Feedback)**, 동물과 인간의 언어의 개별적 특성(**Specialization**), 소리와 그 소리가 담고 있는 **의미성(Semanticity)**, 소리와 의미의 자의적 연결로서의 **자의성**, 소리가 의미하는 상징의 **비연속성(Discreteness)**, 시공간 **초월성(Displacement)**을 가진 소통능력 등을 공통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발달의 기원은 형상이나 문자를 사용한 고대의 인간의 역사만큼 길다. 성경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언어가 각 지방과 나라로 흩어져 만국어로 나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한 예로 하나의 언어에서 세계 여러나라의 언어로 분화되기 시작한 구약성경의 바벨탑 사건을 성경의 인류계보를 통해 추적한 결과 B.C. 2,218년이며 동양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중국의 한자의 발생 기원이 B.C. 2500년 경임을 강선교사와 Ethel R. Nelson은

“창세기의 발견”(The Discovery of Genesis: How the Truths of Genesis Were Found Hidden in the Chinese Language)이란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하바드 중·일 도서관(Havard’s Chinese-Japanese Yenching Library)의 역사문헌을 통해 중국어 형성과정에서 인간의 언어에 반영된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창조와 구속의 흔적을 확연히 발견하게 된다(Kang & Nelson, 1979). 다음은 한자의 형성과정에서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사건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한자의 근원에 대한 몇가지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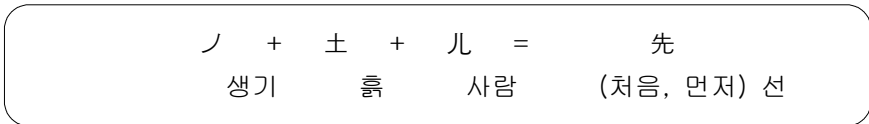
● 造 (지을 조)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창조의 이야기이며 모든 창조의 조감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서 그 코에 입으로 생기를 불어 넣으시사 사람의 생명, 즉 산 존재가 된 아담은 성인의 모습으로 말도 하며 걸기도 했다. 우리는 이 한자에서 아담의 모습을 보다 생생히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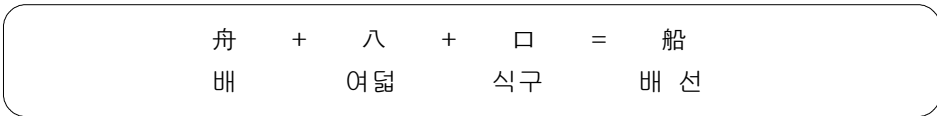
● 先 먼저 선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입니다. 한자 “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船 배 선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여덟 식구를 표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자의 속성을 분석하여 찾아낼 성경의 말씀과 한자와의 상관성은 더 많으나 지면상 몇 가지 예를 소개하고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미션하우스, 1980)을 더 깊이 참조하기 바란다.

인류의 언어는 각 나라마다 흩어져 발달하게 되고 인간의 자신의 모국어(L1) 중심으로 제2언어(L2), 제3의 언어(L3), 그리고 외국어(FL)로 배우게 된다는 설명을 어떻게 진화론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것은 그 의사소통의 기원이 곧 신적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의 의사소통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과 인간의 의사소통,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의 기록이 대부분이요, 인간과 동물과의 의사소통은 참으로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기

적적인 사건에서만 신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인간의 의사소통과 동물의 의사소통의 정도와 수준은 결코 비교, 견주어질 대상은 아니요, 동물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자기표현으로서의 음성적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일 뿐, 언어적 체계나 문법적, 문화적 체계를 갖춘 인간의 언어와는 그 기원과 발달의 정도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창1:1-5:2).

III. 성경적 관점에서 본 영유아의 의사소통

1. 신적 기원을 가진 인간의 의사소통의 천성과 발달

1)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의사소통에 기인한 언어의 신적 기원

언어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근거있는 훌륭한 동서고금의 고전 중의 고전은 성경이다.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의사소통의 관련성을 세심하게 명시하고 언어의 신적 기원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우선 창세기 1장 3, 6, 9, 11, 20, 22, 24, 26,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그대로 있었고(되었고)" 1장 5, 10, 14절 "하나님이...부르시고... 부르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온다. 구약성경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이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15회 나오는 셈이다.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언어사용의 기원도 분명해지는 셈이다.

2)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도구로서의 언어

창세기 1-2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창1:3-5)는 말씀뿐만 아니라 6일간의 모든 창조사역은 언어로 지시되었고 피조물들을 그 언어에 순종하여 존재하게 된 창조물로서 언어의 창조력을 그대로 입증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고된 작업을 거쳐야 겨우 작품을 만들어내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말 한마디의 호흡만으로도 능히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재된 특별한 창조능력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Silva, 1994:28-29).

3) 질서적 창조물에 대한 명명과 역할부여의 도구로서의 언어

하나님은 그가 언어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셨다. 창1:4절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하시며 어둠을 비추는 환한 광채의 피조물에게 "빛"이라고 호명하셨다. 하나님이 그 빛을 어둠과 분류하여 각각 "낮"과 "밤"이란 이름을 명명하셨으며 각각 낮을 비추고 밤을 비추는 역할도 주어 그 존재의 가치도 부여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류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명명하셨다.

하나님의 언어를 통한 창조계는 질서가 있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의 분류, 명명, 역할부여는 6일간의 창조사역기간에 계속 반복되어지며 다음날의 창조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을

전날에 미리 창조하심으로 창조계의 서열과 질서를 세워 가시며 그의 창조사역을 이루어 가셨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실로 언어의 하나님이시며 질서의 하나님, 분류와 명명이란 논리-수학적 활동을 몸소 보이신 주도면밀하신 하나님이다. 최초로 각 피조물에게는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과 그 이름에 합당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무명세(Job description)가 주어져 각 피조물들이 각자 감당해야할 역할분담에 대한 질서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 이러한 피조물을 순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창조, 분류, 명명, 역할분류하시고 복 주신 이유는 마지막 창조물인 인간 창조의 서곡이었다.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계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주권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돌보기를 위임하셨다(창1:28). 인류의 기원을 다루기도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사역 안에서의 언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 창조된 피조물을 분류하고, 명명하고, 그 존재의 가치와 역할을 부여하는 모든 일에 사용된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며 매체였다. 어쩌면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 자연에게 지시하였고 그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언어에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반응한 것을 보아 하나님과 자연이 소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자연과도 소통하신 것이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즉 소통하는 예는 신구약 성경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담이 동물들에게 어떻게 이름 짓나 보려고 동물들을 그에게 데려오심은 모든 동물이 하나님이 오게 하신 뜻에 순종하여 아담에게 온 것이다. 하나님과 동물과 소통된 것이다(창1:26-28).

추종하는 애굽군사를 피해 홍해앞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발을 구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에 대라 하셨고 바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갈라져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을 마련해주었을 뿐 만 아니라 다시 물이 합쳐져 애굽 군사들을 그대로 바다에 빠뜨려 죽게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하나님-자연의 소통의 기적이다(출14장).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사건(수 10:7-14),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막6:47-48)은 바다가 예수님이 빠지지 않도록 발을 지지했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케 하기 위해 발락은 능력 있는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당나귀를 타고 가려했으나 당나귀가 앞을 잘 가지 못하고 결국 발람은 다치자 당나귀를 때렸을 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면 말을 한 사건이 있다(민22:28-30).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사자의 입의 재갈을 물리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던 사자들의 사건(단6:1-28),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회개케 하라는 복음전파의 기능을 돕도록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욘1:17-2:10) 역시 하나님과 소통하의 그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였다.

인자 하나님(예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에게 가셨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다(마8:23:27,막4:35-41,눅8:22-25). 이는 창세기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창1:1-2)는 말씀과의 연결된다. 여러 가지 예에서 우린 성삼위 하나님이 그

의 피조물들과 소통하시며 그 것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의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주권 대행자이므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한 관계에 있도록 중간관리자로서 하나님-인간, 인간-인간, 인간-자연과의 소통의 역할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하려 소통해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창1:26, 28; 역29:11-12).

4) 하나님의 주권대행자 인간창조에 대한 언어적 선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의 속성을 닮은 언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격과 활동에 고유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독특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속성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창조세계를 다르시도록 아담과 하와와 받은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잘 정복하고 다르시도록 받은 문화명령(창1:28)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위대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의사소통의 합의 대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계를 보존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리고 관리할 청지기로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1:26)에 나타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창조계획은 언어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셨지만, 자신의 통치권과 주권을 대행할 수 있도록 만류의 영장,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그의 피조물의 통치를 대행할 주권을 맡기기로 합의하셨다. 성삼위 일체의 합의와 선포에는 그를 대행할 인간 즉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일의 한계(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도 선포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대행자로서의 위임에 관한 명시적 사건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후 다음과 같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계 통치권의 대위임(문화명령)을 그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에게 언어로 제시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언어사용자로서의 형상은 인간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언어사용자이며 언어창조자로서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언어는 신적 속성을 가졌고 그 언어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원래의 신적 속성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창1: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성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인간 창조의 뜻을 서로 전달하고 공유하고 합의하신 후 인간을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의 인간창조 이전에 이미 의사소통마저 신적 속성을 가진 것이며, 신적 기원

에서 유래된 것이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사소통의 존재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자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인간 언어·의사소통의 우월성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언어란 동물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다. 진화론의 주창자이며 저명한 사회생물학자 Edward O. Wilson(1975:555-556)도 “인간이 가지는 모든 독특한 사회적 행위들 중에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며 이 능력은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이다. 인간의 언어가 발달해 온 것은 ‘진핵세포의 합성’(the assembly of the eukaryotic cell)에 비견될 진화론으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획기적인 비약이다” 라고 말한다.

비기독교적 진화론의 관점을 가진 Ray Past (1970:1) 모두 신학과 비신학의 학문적 주장과 무관하게 언어야 말로 하등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언어 즉, 말(speech)에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Noam Chomsky(1972:1) 역시 “인간의 언어를 연구하면 할수록 언어능력이야 말로 ‘인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아는 한 언어는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진 정신적 자질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언어적 창조사역은 그대로 인간에게 전수되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첫 과업인 동물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과업 속에서 잘 나타난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에게 친히 언어로 이름을 지어주심같이(창1, 5장, 창2:19-20)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언어적 잠재능력과 창조력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그 앞에 놓인 동물들을 그들의 속성대로 분류하고 명명함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적 과업을 이루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한 언어를 통한 주권을 행사하셨듯이 최초의 인간인 사람도 각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줌으로써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였다. 그의 통치적 주권을 대행하여 성취한 것이다(Silva, 1994:30).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2:19)에 인용된 바와 같이, 언어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인간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관여된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조물에게 그 속성에 따라 명칭을 처음으로 부여하신 분이 언어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 언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야 할 의사소통의 도구로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Steensma & Van Brummelen, 1977).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적 창조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천성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에게 첫 과업으로 동물들에게 명칭을 부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담의 언어 및 행동적 행위와 순종을 통해 잘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창2:19). 하나님과 첫 인간 아담은 모두 이 언어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다스리며 관리하신다. 언어는 독특한 신적 자질이면 또한 인간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갖게 되는 명백한 증거물이기도 한다(Silva, 1994:36).

2. 인간 공동체 속에서 소통의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1) 공동체 삶속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

Raja(2008)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중요시 한다. 기독교인들은 복음화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을 살리고자 하나는 하나님 뜻을 소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의사소통을 통해(창1장) 공동체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삼위일체 안에 계시는 공동체는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듣고 말하고 동의하며 행동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반대편의 대상에게 조차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함께 나누신다. 하나님은 같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다른 삼위가 일체로 항상 함께 일하신다.

구약성경 사8:22-2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는 함께 의사소통하심을 알 수 있다. 그의 백성의 요청을 들으시고 왕이 없음을 한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을 삼아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비록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은 사울왕의 변절과 배신을 받았으나 그 왕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계속 존중하시고 그들과 소통하시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의 뜻을 알리시고 백성들의 뜻을 들으시며 의사소통하셨다.

2) 대중과 소통하시는 예수님

신약성경의 예수님도 그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우고 익히며 사람들과 소통하며(막2:46, 52) 그의 공생기간 동안 제자들과 늘 동고동락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묻기도 하시고(마16:15-19),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또 그들의 깊은 내면의 뜻을 이해하시고 소통하셨다(마20:30-34, 21:2-6, 21; 눅2: 요1-12).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의 바램을 바라보셨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들과 소통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웃과의 소통은 자신을 다 내어 배신당하기까지라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본보기가 되셨다.

3) 낮은 자와 소통하시는 예수님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의 성품 속에는 항상 이웃과의 소통에 있어 사람을 가리거나 천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낮은 자들, 버림받은 이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낮은 자존감을 세우시는 한없는 사랑과 보살피셨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받고 증오당했던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 그와 대화하며 그를 자신에게 가까

이 오게 하였고 그의 집에 머물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은 당시의 간음한 여인(성문란 자) (요8:3-8)에게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타인의 흉허물을 보기 앞서 자신의 죄성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그 여인이 돌려 쳐 죽임 당하기를 막으셨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셨고 또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의 근본 원인이 자기투사였음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상황의 분노의 희생자를 구하셨다. 예수님은 그 당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무덤사이에서 사는 군대 귀신들린 자(중증 정신병자, 막5:1-20)를 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말로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하였고 그를 온전히 고치셨다. 또 이어서 12년간 혈루병(만성자궁 출혈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깃을 만져 나옴받기를 소원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하며 그의 마음 깊은 소원을 들어주시고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참 자유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눅5:25-34).

이 외에도 앓은뱅이(지체장애자), 소경(시각장애인, 눅18:40-42; 요9:1-2), 사마리인(다문화인) 등 사회의 소외계층들과 소통하시며 어둠의 삶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죄악의 삶에서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 주류사회의 비난과 따돌림을 감당하셨다. 또한 그들을 무시하며 그들과 같지 않음에 대한 교만과 우월의식이 있는 사회적 가식자들(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을 멸시함을 경고하시곤 하셨다.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면적 경건성이 내면적으로 한 날 무덤에 불과하다고 꾸짖으신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마23:27-28)라고 직설적으로 그들의 이중성과 가식을 개탄해하셨다. 예수는 그들의 죽은 시체같은 내면의 외연적 경건성을 번지르르하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다(김영한, 2009).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차 마음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마 23:25)라며 지적하고 경고하며 비난하신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하시며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마 23:26)라고 지적하시며 그의 가식을 없애기를 촉구하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약당시의 지도자급에 있는 이들이 대중의 고충을 살펴보고 외식하고 가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진심으로 자기보다 못한 자들의 마음과 처지를 살펴 그들과 마음, 삶, 재정,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받은 특혜를 나누며 소통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과의 소통이며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시이며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공동체 삶에서의 진정한 소통의 본이 된다.

4) 어린이와 소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당시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하고 그 인격도 존중받지 못했던 어린이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을 꾸짖으셨다. 오히려 어린이들을 가까이하시고 안수하시고 축

복하시고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마19:14; 눅18:16).

사람들의 관심밖에 무시된 존재인 어린이를 예수님은 사랑하고 가까이 하셨으며 그들의 존재가치를 그와 소통이 가능하며, 그에게 안수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귀한 존재로 만인 앞에 모델링을 보이셨으며, 천국을 갈 수 있는 마음 그릇을 가진 귀하고 성별된 자(막10:13-16)로 만인들 앞에 본보기로 그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어린이와 예수님과의 소통을 막는 이들을 꾸짖고 노하시며 소통을 방해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와 하셨다(마19:14; 눅18:16).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막10:13-16)라는 성경말씀은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들과의 소통을 누구보다도 때문지 않은 온전한 소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가치를 만인 중에 드높여주셨다.

IV. 결 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본 유아의 의사소통발달에 관한 이론적 기초는 유아의 의사소통의 도구인 언어의 단편적 측면에 중점하여 제한된 설명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본 의사소통은 그 기원과 쓰임새, 그 것을 통해 이루어야할 목적까지 온전하고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본주의 의사소통은 단순한 인간을 위한 자기표현과 타인이해에 제한되어 있으나 성경적 의사소통영역과 신-인간, 신-자연, 인간-인간, 인간-자연에 관한 인간의 삶의 영역과 초월 영역까지의 소통의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의 광의적 의미와 인간 초월적 의미, 그리고 인간 삶의 구체적인 작은 영역까지의 치밀한 부분예까지의 소통이 필요하며, 그 소통은 어떻게 실천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예시들로 가득히 설명하고 있다. 즉 유아의 소통은 단순히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소통의 범위를 넘어 인간과 창조주 신과의 소통,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 인간이 다르려야할 자연과의 올바른 돌봄 관계의 소통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널리 알려 인간구원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한 의사소통의 궁극적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규훈(2004:89-118)은 ‘인간관계론’에서 의사소통은 21세기의 중요 생존전략이며 과거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의 체계에서 필요한 에너지(energy)가 현대의 상생공존 체계에서는 시너지(synergy)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마음이 통하며 서로 존중하는 열린 의사소통의 조직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소통은 이미 신생아기의 모자관계에서의 신뢰감과 애착형성에서 그 기반을 두고 가족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사회관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태생과 인간의 삶의 중요도구인 의사소통이 하나님의 신적 기원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함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아와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초석이 되는 요소는 모-자 애착관계이며 이것은 영유아의 인성의 기초가 되는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자신을 성찰하며 내면의 자아를 건강하게 성장, 성숙시킨 사람만이 타인의 내면을 더 깊이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 타인의 소통에서 대화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대인과의 의사소통에서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성찰과 자기내면의 개발과 성숙은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삶의 발달과정이 되어야 한다 (Bowlby, 1969, Ainsworth et al., 1978)고 설명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소통의 바탕이 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의 원리이며 이는 주 양육자와 자녀간의 애정적 연대감과 신뢰감의 바탕 위에 격려와 칭찬으로 그의 능력을 세워주는 일일 것이다(정종진, 1998).

건강한 자존감이나 긍정적인 자기에 대한 가치 인식은 대인관계 기승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는 부부관계와 온전한 가정의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얻는 안정과 안전의 욕구 만큼이나 중요하다(Chapman & Campbell, 1997; Maslow, 1943).

교육부에서 제시한 만3-5세 누리과정에서의 의사소통발달은 유아의 신체건강영역 다음으로 사회적 생존을 가능케하는 우선적 요소로서 의사소통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만큼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은 단순히 인본주의 관점에 제한을 두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 그 기원, 그 발달, 사용의 궁극적 목적과 바른 의사소통의 실천적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까지 걸쳐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 기초로서 성경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2) 만3-5세 누리과정 고시.
- 선안남 (2011). 행복을 부르는 자존감의 힘. 서울: 소울메이트.
- 정규훈 (2004). 인간관계론. 서울: 그리심.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s,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NJ: LEA.
- Altwerger, B., & Flores, B. (1986). Theme cycle. Key note address. TAWL.
- Skinner, B. F. (1957). Verb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1.:Attachment, NY: Basic Books.
- Chapman, G., & Campbell, R. (1997). The five love language of children. Chigago, IL: The Moody Bible Institute of Chicago.
- Chomsky, Noam 1959, "A review of B.F. Skinner's Verbal Behaviour". Language 35:26-58
- Chomsky, Noam 1968, Language and mind.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Clay, M. M. (1967). The reading behavior of five year old children: a research report. New Zealand Jr of Education Studies. 2(1). 11-31.
- Connell, J. M. (Feb., 2008). The emergence of pragmatic philosophy's influence on literary theory: making meaning with texts from a transactional perspective. Educational Theory. 58(1). 103-122.
- Derman-Sparks, L. & the A.B.C. Task Force (1989).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Derman-Sparks, L., Edwards, Olsen, J. (2010). *Anti-Bia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Ourselves*. Washington, DC: NAEYC.
- Durkan, D. (1966). *Children who read early*.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Edelsky, C., Altwerger, B., & Flores, B. (1991). *Whole language: what's the difference?* Portsmouth, NH: Heinemann.
- Fodstad, Jill C., Matson, Johnny L., Hess, J., Neal, D. (Jun., 2009). Social and communication behaviours in infants and toddlers with autism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 *Developmental Neurorehabilitation*, 12(3). 152-157.
- Freeman, Y., & Freeman, D. E. (1992). *Whole Language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Portsmouth, NH: Heinemann.
- Frizzo, G., Vivian, A., Piccinini, C., & Lopes, R.(May, 2013). Crying as a Form of Parent-Infant Communication in the Context of Maternal Depression. *Jr of Child & Family Studies* 22(4). 569-581.
- Goodman, K. S. (1986).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 Portsmouth, NH: Heinemann.
- Goodman, K. S. (1988, July). *Language and learning: Toward a social-personal view*, Presented at Brisbane Conference on Language and Learning.
- Goodman, K. S. (2006).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 20th Anniversary Edition*. RDR Books.
- Goodman, K. S., & Goodman, Y. M. (1979). Learning to read is natural. In L.B. Resnick & P.A. Weaver(Eds.). *Theory and practice of early reading*. Hillsdale, NJ: Earlbaum. 51-54.
- Goodman, K. S., & Goodman, Y. M. (1990). Vygotsky in a Whole Language perspective. In L. Moll (Ed.), *Vygotsky and educa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3-250.
- Grice, H. P. (1957). Meaning. *The Philosophical Review*. 66. 377-388.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Morgan (Eds.). *Speech acts: syntax and semantics*. 3. New York: Academic Press. 41-58.
- Halliday, M. A. K. (1973). Exploration in the functions of language, London: Arnold. In L. Pham, (1994, Winter). Infant dual language acquisition revisited, *The Jr of Educational Issues of Language Minority Students*, 14, 185-210.
- Halliday, M. A. K. (1975). *Learning How to Mean*. London: Edward Arnold.
- Heath, S. E. (1983). *Ways with word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ckett, C. F. (1961). The problem of universals in language. In J. H. Greenberg (Ed.).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A: MIT. 1-29.
- Hockett, C. F. (October, 1960). Animal "languages" and human languages. *Scientific American* 203. 89-96.
- Hymes, D. H. (1972). Models of the interaction of language and social life. In J. Gumperz & D.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New York, NY: Holt, Rinehart & Winston. 35-71.
- Janes, A. V. L. (Dec., 1991). The 6 vital ingredients of self-esteem and how to develop them in your child (Book). *Library Journal* 116(21). 178.
- Kang, C. H. & Nelson, E. R. (1979). *The Discovery of Genesis: How the Truths of Genesis Were Found Hidden in the Chinese Language*. 이강국 역. 1999.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서울: 미션하우스.
- Katz, L., Tello, J. (Jun-Aug 2003). 'I Love Me!' how to nurture self-esteem. *Scholastic Parent & Child*. 10(6). 82-85.
- King James (1611). *King James Bible*. <http://www.biblegateway.com>
- Krashen, S. D. (1999). *Three arguments against whole language & why they are wrong*. Portsmouth:

- Heinemann.
- McLaughlin, B. (1978). *Second-language acquisition in childhoo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 Ohta, S. (200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es in the classroom*.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Oppenheim, D. (May 1997). The Attachment Doll-play Interview for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4), 681-697.
- Paavola, L., Kunnari, S., Moilanen, I. (Nov., 2005). Maternal responsiveness and infant intentional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the early communicative and linguistic development.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6). 727-735.
- Pallas, A. M., Entwisle, D. R., Alexander, K. L., Weinstein, P. (Dec., 1990).
- Pepler, L. S. (1993). *Social conversational differences between aggressive and nonassertive preschoolers: patterns of language use during free pla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Piper, T. (1993). *Language for all our childre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Raja, J. J. (Dec., 2008). *Controversies in Theology and the Media*. SCM Press.
- Roberts, R. E. L., Bengtson, V. L. (Dec., 1993).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6(4). 263-277.
- Rosenblatt, L. (2005). *Making Meaning with Texts: Selected Essays*. Portsmouth, NH: Heinemann. xxxiii.
- Sacks, H., Schegloff, E. A., & Jefferson, A.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696-735.
- Schinke-Llano, L. (1993, March). On the value of a Vygotskian framework for SLA theory and research, *Language Learning* 43(1), 121-129.
- Silva, M. (1994). 하나님 그리고 언어와 성경과의 관계: 현대언어학을 통해서 본 성경해석학. 김재영 역. 서울: 나침반.
- Southgate, V., Van Maanen, C., Csibra, G. (May/June 2007). Infant Pointing: Communication to Cooperate or Communication to Learn? *Child Development* 78(3). 735-740.
- Steensma, G. J., Van Brummelen, H. W. (1977, Eds.). *Shaping school curriculum: a Biblical view*. Signal Pub/Consulting Corp..
- Tannen, D.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Men and women in conversation*. New York: Morrow.
- Tudge, J. (1990). Vygotsky,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and peer collaboration: Implication for classroom practice. In L.C. Moll (Ed.), *Vygotsky and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Y, 155-172.
- Ucci M. (Apr., 2000). Helping A Young Child Build Self-Esteem. *Child Health Alert*. 17, 3-4.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Cambridge, MA.
- Wilson, E. O. (1975).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Cambridge, MA: Belknap.